

2023년 금융권 공동 싱가포르 투자설명회
(INVEST K-FINANCE: SINGAPORE IR 2023)

개 회 사

2023. 5. 9.(화)

싱가포르 팬 퍼시픽 (Pan Pacific) 호텔

금 융 감 독 원

원 장 이 복 현

I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입니다.

국제금융 허브인 이곳 싱가포르에서
한국 금융산업의 강점과 기회요인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글로벌 투자자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최훈 주싱가포르 대사님과
한국의 주요 금융회사 대표단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뜻깊은 소통을 통해
한국의 금융산업과 제도 및 정책 환경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분들의 이해가 증진되고
상호 발전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저는 오늘 한국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이
매력적인 투자처인 이유를

- ①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
 - ② 한국 금융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
-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 ③ 한국 정부와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
-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I 한국 금융산업의 강점과 기회요인

먼저, 한국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성과 건전성입니다.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등
미국 중소형 은행 폐쇄와 크레딧스위스은행 사태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바 있습니다.

물론 한국시장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만,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견실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경우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기업의 채무상환부담 증가로 자산건전성이 소폭 저하되었으나 팬데믹 이전에 비해 양호한 수준으로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며,

특히, 아시아 외환위기 경험 이후

한국 금융당국이 핵심 관리지표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은행 외화유동성 상황도 매우 양호한 수준입니다.

또한, 증권·보험 등 여타 금융권역도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 측면에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 금융시스템은 전반적으로

대내·외 위험요인 악화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회복탄력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부동산 PF 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은 전체 PF 사업장별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주단의 자율적 사업 정상화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 PF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함께
부동산 관련 규제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빠르게 증가했던 가계부채도
금년 들어 안정화되었으며,

최근 금리상승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다소 올랐으나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IMF나 주요 신용평가사 등에서도 평가하였듯이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관리 가능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금융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입니다.

한국은, 금융산업과 급속하게 융합하고 있는
ICT·AI·블록체인 등 신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강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금융 분야의 리더로 부상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주요 금융회사들이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디지털 플랫폼의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고,
해외 디지털 은행 등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 잠재력이 큰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 진출을 확대하여 외연 확장은 물론
성장 모멘텀 역시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이러한 한국 금융회사들이
진출국 현지에서 안정적이고 건전한 영업활동을 하도록
규제·감독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고
해외 현지 당국과의 협력 및 소통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와 금융당국의 투자환경 개선 의지입니다.

특히, 한국 정부와 금융당국은

- ①글로벌 투자자의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 ②투자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 ③비거주자의 한국 외환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 ④규제·감독 행정의 투명성·일관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①글로벌 투자자의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상장법인의 영문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국제표준(XBRL) 재무공시를 확대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의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보고 의무를 폐지하고,
장외거래 사후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의 규제부담 완화 및
편의성 제고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파생상품시장 거래시간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투자자들이 시장 상황 변동에 적시 대응하고
해외 거래시간에도 한국물 헤지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② 소액주주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배당여부와 배당액이 확정된 후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동이나 내부자의 주식거래시
일반투자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개매수 및 사전공시 의무화 등의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금융회사의 이사회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지배구조가 보다 강건해질 수 있도록
감독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③비거주자의 외환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은행간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환시장의 개장시간을
런던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마감시간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④규제·감독행정의 투명성·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글로벌 투자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투자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
K-Pop, K-Drama 등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세계인들의 폭넓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간 실물경제의 빠른 성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며 발전해 온 K-Finance 역시
이제 신뢰와 혁신을 토대로 새로이 도약하며
그 위상을 더욱 높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한국 금융에
굳건한 믿음과 애정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글로벌 투자자 여러분들이
한국의 금융산업과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도록
금융감독원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